

일주문

“외국 노동자 인권 찾아주자”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② 경불련 외국인노동자센터 정진우 간사

“깜짝 놀랐습니다. 폭언, 폭행 및 인권유린, 임금체불 등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고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는 차마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되찾아주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설고 물신 한국 땅, 열악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진우 간사(32, 정 간사는 오늘도 재생불량성 빈혈로 고통받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고 있다.



끼던 차에, 우연히 경불련을 방문했다가 시민운동을 하는 경불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마침 경불련은 외국인 노동자를 도울 운동가를 모집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정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을 하면서 함께 했던 불교 경전 공부를 통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96년 네팔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산재를 당해 오른손을 잃은 네팔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스스로없이 저에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더군요. 피해자인 그가 가해자의 나라에서 온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니. 아, 이런 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고 원효스님이 말한 무애사상이구나. 마음의 수행, 관점에 따라 얼마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가를 그의 태도가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때 정 간사는 “불교가 세상의 분열과 투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권, 노동문제를 해결할 길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 있다”고 굳게 믿게 됐다고 말했다.

“불법에는 너와 내가 없다”는 정 간사는 ‘종교적, 민족적 차이를 넘어서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 성취’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성도절 기념법회 법문
청화 곡성 성문사 조실은 15일 광주 증심사에 초청돼 임오년 성도절 기념 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동광사 개원법회서 설법
정무 대구 법왕사 회주는 10일 개원한 법왕사 서울 분원 동광사 개원법회에 참석해 설법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일철 생명나눔 광주지부장은 17일 2시 전남대 병원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치료 성금 500만원을 전달한다.



제주교구 중무원장에
도성 제주 백운정사 주지는 27일 11시 취임식을 갖고, 태고종 제주교구 중무원장에 취임한다.



독거노인돕기 성금
성덕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장은 17일 오후 2시 연합회 강북법당에서 독거노인돕기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한다.



여성부 1주년 기념식 참석
능광 나눔의집 원장은 29일 삼성코엑스에서 열리는 여성부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조계사 불교대서 강의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역진을 극복해야 상담원이 된다’ 주제로 강의를 한다.



조영호 국장 정년퇴임식
조영호 전 불교신문사 업무국장은 15일 오후 6시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정년퇴임식을 갖는다.

前 불교방송 상무 김병운 씨



불교방송 상무와 불교텔레비전 이사를 지냈던 김병운씨의 49세가 8일 수곡사에서 봉행됐다. 지난해 11월 21일 향년 73세로 별세한 김씨는 조계종 재정과장, 교구본사연합회 사무국장, 불교신문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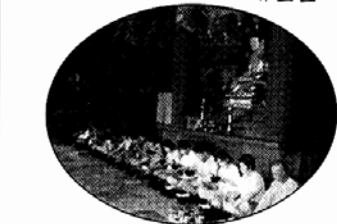
前 불교방송 상무 김병운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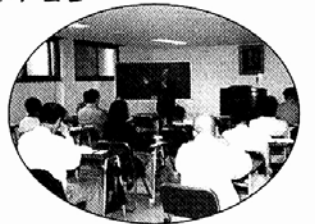
불교방송 상무와 불교텔레비전 이사를 지냈던 김병운씨의 49세가 8일 수곡사에서 봉행됐다. 지난해 11월 21일 향년 73세로 별세한 김씨는 조계종 재정과장, 교구본사연합회 사무국장, 불교신문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종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진각종 이미지 심는데 혼신”

신임 부산 경남교구청장 일현 대정사

“부산 경남내의 젊은 스승님들과 뜻을 모아 부산 교계에 진각종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싶습니다.”

12월 20일 부산경남교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사실상 2002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일현 대정사(49)는 “진각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를 올해의 목표이자 과제로 정해 놓았다. 물론 내부적인 역량 키우기에도 소홀하지 않을 계획이다. 6살때부터 심인당을 다니며 진각종의 교리를 익혀 온 일현 대정사는 “심인당안에만 머무는 교리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행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했다.



“진각종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연구 실행해 보고 싶다”는 일현 대정사는 앞으로 4.8봉축 행사 참여, 시민대상 봉사활동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계의 각종 행사에서 진각종의 활발한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것이 곧바로 진각종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일현 대정사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진각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템플스테이 잘 운영됐으면...”

사법고시 준비생 정우종 군



자신이 공부했던 사찰의 불사에 참여하는 등 사찰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 대학생 이야기 가 흥취를 전해주고 있다.

서울대 법대 3년 정우종(28) 학생은 경북 충주 대정사가 최근 템플스테이 추진하자,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품꾼이 모은 돈을 보시했다. 정우종 학생이 대정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3개월동안 대정사암자인 백련암에서 공부하면서부터.

“주지스님께서 숙식은 물론 거쳐까지 아무 조건없이 제공해주셨으니 보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종 학생은 올해 3월에 있는 사법고시 준비에 한창이다. “합격하면 스님들께서 플래카드를 걸어주신다고 했어요. 대신 저는 겨울만 되면 추워서 앉아 있기 힘든 대정사 대웅전에 보일러를 놓아드릴 겁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 외에 정우종 학생은 올해 또다른 소망이 하나 있다. “템플스테이가 잘 운영돼서 우리 불교가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우 기자 mhwan@buddhapa.com

“사바에 다시 오시어 나침반이 돼 주소서”

■ 혜암 큰스님을 추모하며

석지명 법주사 주지



혜암 큰스님, 해인사 영결식장에 마련되었던 스님의 영전에서 통곡하는 신도들을 보았습니다. 낮이 나간 듯이 먼 곳만 바라보는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보는 이들도 같이 울고 같이 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런 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종도들과 함께 소승은 스님을 존경하고 흠모해 왔습니다. 신문, 잡지에서 수 차례 스님에 관한 특집을 꾸밀 때, 소승이 대담자의 역할을 띄고 장시간 묻고 답하면서 실제 참구와 체험에서 우리나라는 싱싱한 법문을 듣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94년 이후 조계종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스님께서 어느 쪽으로 향하는 지를 먼발치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스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함

고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바른 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스님을 한국불교의 큰 등불, 별, 산, 기둥 등으로 비유해도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빈가 찬탄하기로 작정하고 만들어낸 상투어 같이 들립니다. 스님의 불타는 구도심과 부득히 좌우를 선택해야 할 때에 보여주시는 불가사의한 방향 감각을 저 화려한 말들이 오히려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승은 스님을 나침반으로 비유합니다만, 이 또한 스님에게 누를 끼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별을 하고 입을 연, 즉상이 따르고, 그것은 모든 면에서 적게 먹고 살자는 스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化身 찾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라든지 ‘적게 먹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은,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철저하다 못해 건강을 해할 정도로 수행자의 모습을 지켰지요. 장좌불와와 일종식을 실천하면서, 캄마르고 푹푹한 형상과 짜랑 짜랑한 음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종단적으로 해인총림 방장, 원로회의 의장, 종정 등의 직함을 갖게 되셨지만, 모두 다 임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나누시는 임적이 중직임을 빨리 버리려는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적게 먹으면서 수행하며 가르치다 보니, 우리는 너 나 없이 스님께 크게 의지하고 있었지요. 수행 분상에서 난관이 있거나 종단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님은 우리 모두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향하는 쪽으로 종도들이 믿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산중 대웅이 모여 문상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가풍을 잘 아는 많은 스님들이, 문상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이 고요를 보인 이 마당에, 스님을 가장 잘 추모하는 길은, 스님의 가르침과 바른 방향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님, 도솔천이거나 서방 정토거나 아니면 다른 해탈 세계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소서, 어서 빨리 사바로 오셔서 우리의 또 다른 나침반이 되어 주소서. 스님께서 변장을 하고 오실 때, 우리는 얼른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스님을 잊지 못하고, 스님의 또 다른 화신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소서.

스님은 영원히 우리의 나침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2002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 30년 전통 2000여 동문의 교계 최초의 불교 교양 대학 -

- 강의시간 3월 4일 개강 주 3일 출석, 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욱(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시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범패전승자)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현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범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종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친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20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입학식 2002년 3월 3일 오전 10시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방자치단체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敎大學 학장 해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 756-7258

불기 2546년 성도절 기념 대원불교대학 동계 수련대회

- 일 시 : 2002년 1월 18일 ~ 20일 (2박 3일간)
- 대 상 : 대원불교대학 및 일반 불자
- 참가비 : 30,000원
- 장 소 : 대원불교대학(서울 용산구 우암동 소재)
- 초빙교수 및 강의 내용
- 장휘욱 교수 : 관세음보살 보문공감득
- 최봉수 교수 : 인도불교의 이해
- 김시업 교수 : 중관사상의 이해
- 허경구 교수 : 부파불교의 이해
- 마일운 스님 : 삼보통칭 실수
- 민법현 스님 : 불교와 레크레이션
- 김종욱 교수 : 불교와 도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간편한 운동복, 간단한 침구

· 수련일정 중 식사는 발우 공양을 합니다.

· 성도절을 맞이하여 철야공양정진을 합니다.

· 수련 규칙 위반시 퇴장조치 합니다.

대원불교대학에서 일할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여사무원 1명
- 자 격 :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OA 사무가 가능한 자 [불교전공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 제출기한 : 2002년 1월 31일까지